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정 옥

2015년 8월

<국문초록>

##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

김 정 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장애인의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영역 즉, 업체 취업과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활동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에서부터 만 60세 미만의 성인장애인 총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성장애인 1명을 면접 조사하여 연구결과 해석에 대한 보충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중 학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부모와 형제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다른 가족형태(혼자 또는 배우자+자녀)보다 높다.

둘째,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자신감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고,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여부와 마찬가지로 자신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Scheffé 검증한 결과, 업체 취업과 강사활동은 미취업보다 높지만 업체취업과 강사활동의 차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자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라는 사회참여 활동을 중증장애인들의 일반적 경제활동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했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총 57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집단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소 적은 사례이고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라는 영역에 장애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제주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7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강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강사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이 안정되었다고 여겨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수행한다면 강사활동과 다른 취업활동 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를 소재로 누가 진행하든 교육에 참여만 하면 장애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어져 왔고, 교육 진행여부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의 진정한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장애당사자로 변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풀어내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연구들이 장애이해교육의 효과성을 밝히고자 하는 논문이었던데 반해 본 연구는 장애당사자의 경제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에게 있어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4
3. 연구가설 .....	4
4. 용어의 정의 .....	5
<b>II. 이론적 배경</b> .....	<b>6</b>
1. 장애인 현황과 특성 .....	6
2. 장애인의 경제활동 .....	14
3. 경제활동영역 중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의 필요성 .....	16
4.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 .....	19
5. 선행연구 고찰 .....	25
<b>III. 연구방법</b> .....	<b>30</b>
1. 연구대상 .....	30
2. 측정도구 .....	30
3. 연구절차 .....	31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32
<b>IV. 연구결과 및 해석</b> .....	<b>33</b>
1. 일반적 특성 .....	33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	35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 .....	38
4.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효능감 .....	40
5.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활동 사례 .....	41

V. 논의 및 결론 .....	49
1. 논의 .....	49
2. 결론 및 제언 .....	51
참고문헌 .....	54
Abstract .....	60
부록목차 .....	63
<설문지> .....	63

## 표 목 차

표 II-1. 장애인에 대한 정의 .....	8
표 II-2.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10
표 II-3. 우리나라의 장애등록 유형 .....	11
표 III-1.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	31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4
표 IV-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신감 .....	35
표 IV-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	36
표 IV-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 .....	37
표 IV-5. 경제활동에 따른 자신감 .....	39
표 IV-6.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	39
표 IV-7. 경제활동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 .....	39
표 IV-8.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신감 .....	40
표 IV-9.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	41
표 IV-10.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 .....	41
표 IV-11.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강○○씨의 일반적 사항 .....	42



## 그림 목차

그림 1. 자기효능감 기대와 성과기대의 관계 도식 .....	20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매일 ‘일(work)’을 하면서 일생을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핵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일을 하며, 또 일은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일이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며,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함으로써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자아실현을 돕는 활동 중 경제활동 영역에서 일을 직업이라고 한다. 『한국직업사전』에서는 직업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2000)에 의하면 일의 계속성이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매일·매주·매월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명확한 주기를 갖지 않더라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하는 일에 대하여 의사(주도성)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은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직업만큼 개인의 지적,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생계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 실현과 함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으로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주로 접촉하게 되는 대상과 범위를 규정해 주고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 준다. 이렇듯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이자 자아실현의 장인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반면 직업이 없을 경우 심리적, 경제적, 가정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이달엽과 윤상은(2012)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일은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편이며, 생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정신적 문제들까지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2014)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250만명이며 장애 출현율은 5.59%로 인구 10,000명 중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장애인 중 경제활동 인구는 970,600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9.6%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906,267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은 37.0%이며, 실업자는 64,333명으로 실업률은 6.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 63.0%, 고용률 60.8%, 실업률은 3.6%로 나타나 장애인의 실업률이 전체 인구의 실업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순(2010)의 연구에서 장애인 고용은 한 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경제성장의 정체와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늘어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종사상 지위가 열악하며, 소득 또한 낮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뒷받침해 줄 자료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4)에서 발표한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에서도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순으로 비율이 높고, 비임금 근로자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취업 영역도 단순노무직 등에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을 둘러싼 고용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윤상은과 이달엽(2012)은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좋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미취업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송진영(2012)의 연구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취업 상태변화 중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한 경우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장애인들은 현재 취업 상태인 경우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일상생활만족도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에 미친다는 연구결과(고민석 외, 2014; 김민영, 2013; 김연실, 권명진, 김시경, 2012; 이재순, 2010; 김한성, 이유신, 2014; 서광석, 2006; 임동진, 문상호, 2014; 임수정,

2010)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기효능감(김전홍, 2010; 김정운, 2012; 김종석, 2009; 남연희, 채인석, 이승준, 천덕희, 김영삼, 2011; 신주영, 2014; 임인선, 2003; 임인택, 2012; 한승길, 2013)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돕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당사자들이 직접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있다.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어울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각각 장애예방교육, 장애당사자로서의 사고 경험담, 장애인권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도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소속된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들과 제주장애인야간학교의 인권강사들이 직접 교육현장에 나서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장애당사자들이 진행하기 시작한 이후 많은 연구(강현미, 2009; 김성애, 2014; 김유리, 2012; 김은경, 2008; 김은수, 2008; 김진주, 김수연, 2013; 박영아, 2010; 정우진, 2012)들은 장애당사자들이 진행하는 교육에 참가한 초·중·고등학생들의 장애인식과 태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당사자의 심리적 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장애당사자의 심리적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활동이 피교육자의 변화와 함께 자기 자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장애인의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활동영역 즉, 업체 취업과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활동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 3. 연구가설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 1-1.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 1-2.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 1-3.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인 과제난이도 선호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용어의 정의

##### 가. 장애인

본 연구에서 장애인이란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된 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 나. 경제활동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이란 업체에 고용되어 근무중이거나 사회복지기관(단체)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강사로 활동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다.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란 Bandura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말하며 개인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일련의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장애인 현황과 특성

#### 가. 장애인의 개념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경제여건과 문화수준에 맞게 다양한 내용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에 유태완 외 4명의 저자가 저술한 장애인복지론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1982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심신차원의 장애’, ‘활동차원의 장애’, ‘사회생활차원의 장애’의 광의로 이해되어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그리고 사회적 불리(handicap)의 세 차원으로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장애분류(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 ; ICDH)를 제시하였다. 이 분류법에 의하면 각 차원의 장애 상호간에는 인과관계 또는 시간적 연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능장애(impairment)가 발생하고, 이러한 장애로 인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수행능력을 저하하고 불가능을 가져오는 경우에 능력 장애(disability)가 발생하게 된다. 이 능력 장애 때문에 일상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때 사회적 불리(handicap)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1997년 세계보건기구는 ICDH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장애의 개념과 분류기준을 새로이 제안하여 ICDH-2(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 A manual of dimensions of disablement and functioning)를 마련하였다. ICDH-2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contextual factors)을 포함한 장애개념을 추가하여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라는 새로운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ICDH-2의 주요한 특징은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장애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이고, 사회 환경적 맥락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장애분류(ICIDH-2)는 그동안 현장검증과 국제회의를 거쳐 2001년 WHO총회에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Geneva, ICF, 2001)라는 명칭으로 개정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ICF는 ICIDH-2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대부분의 내용을 계승하면서 분류체계와 언어사용을 보다 긍정적이며,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정한 분류로서, 장애인에 한정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틀이다.

우리나라 장애의 개념은 국가나 개념을 규정하는 단체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舊,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1991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舊,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UN에서 발표한 장애인 권리선언(1975)에서는 “장애인이란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개념과 정의에 있어 일관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차이에 따라 장애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장애등록의 범주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의 경우에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와 함께 사회적 장애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아래의 표 II-1의 내용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II-1. 장애인에 대한 국가별 관련법 및 정의 정리

국가	관련 법	정의
네덜란드	장애인 고용법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이나 장애 이상으로 인하여 취업에 의한 생계 영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자
	일반적 정의	신체적 장애(이동장애, 신체기관 질환, 감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적 장애(정신질환, 정신지체), 사회적 장애(알콜 및 약물중독)
프랑스	일반적 정의	장애종류 : 지체, 정신, 행동, 청각, 언어, 시각, 척추, 심장, 신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내분비, 신진대사, 혈액, 면역체계, 미관장애(기형 및 추형) 등
스웨덴	일반적 정의	신체적 결손, 정신적 결손, 또는 사회적 장애(알콜중독, 약물중독, 언어장애를 가진 외국 이민자, 타인의 존자)로 인하여 취업하거나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타인보다 곤란한 자(고용곤란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신체적, 정신장애 뿐 아니라 가족 사회적 장애 포함) *장애포함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알콜 및 약물중독, 호흡장애, 심장장애, 알레르기, 당뇨, 마른버짐, 이동장애 등
미국	재활법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제약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법	한 가지 이상의 일상 활동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지닌 자나 이러한 손상의 과거 기록이 있거나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독일	일반적 정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기능상의 제약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 *장애범주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정신지체, 정신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내부장애(호흡기, 심장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 등

국가	관련 법	정의
영국	국가 부조법	맹·농·언어장애, 또는 어떠한 특성이든 지니고 있는 정신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및 질병, 부상 또는 선천적 기형에 의해 현저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장애를 지니게 된 모든 자
	장애인 고용법	부상 또는 질병, 또는 선천적 기형 등으로 자신의 연령, 경험 및 자격에 상응하는 직업을 취득하고 유지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지닌 자
일본	심신장애자 대책기본법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심장기능장애, 음성기능장애, 언어기능장애, 평형기능장애, 호흡기기능장애 등의 고정적, 장기적인 기능장애 및 정신지체 등의 정신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자

#### 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 및 등록 장애 유형

지금까지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7번째 실시되었으며 2007년 법 개정 이후 매 3년마다 전수조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4차 조사)의 장애추정 인구수는 214만명이며 장애 출현율은 4.59%로서 인구 1천명당 45.9명이었다. 최근에 진행된 2014년(7차 조사)의 장애추정 인구수는 273만명이며, 장애 출현율은 5.59%로서 인구 1천명당 55.9명이었다. 장애추정 인구 중 실제 법적 등록장애인은 250만명으로 장애 등록률은 91.7%였고,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9%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II-2는 2014년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이다.

표 II-2.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구 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 장애 추정 인구수	214만명	-	268만명	273만명
• 장애 출현율	4.59%	-	5.61%	5.59%
• 장애 등록률	77.7%	-	93.8%	91.7%
• 후천적 장애발생률	89.0%	90.0%	90.5%	88.9%
• 65세 이상 장애인구	32.5%	36.1%	38.8%	43.3%
•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11.0%	-	17.4%	24.3%

위의 내용 중 2005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장애출현율은 1%가 증가하였고, 장애등록률은 14%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 장애추정인구가 273만명인데 비해 실제 등록장애 인구수는 250만명으로 약 23만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장애유형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등록 범주가 확대되면서 현재 15개 유형에 이르게 되었다. 1981년 5개 유형(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으로 시작되어 2000년에 10개 유형(위의 5개 유형 외에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에 다시 5개 유형(안면, 호흡기, 간질, 장루·요루, 간)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아래의 표II-3의 내용은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15가지 장애등록 유형이다.

표 II-3. 우리나라의 장애등록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 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이처럼 3차에 이르는 장애유형의 확대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밀접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손광훈(2006)은 장애개념과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장애인복지 서비스 모델은 장애에 대한 개별적(의료적) 모델 중심에서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장애의 원인, 장애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 그 문제의 소재, 해결책 등을 장애인 개인적 속성에서 찾아내는 개별적(의료적) 모델에서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문제의 원

인으로 보고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의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허숙민(2013)은 사회적 모델을 설명하면서 1970년대 영국에서 사회적 억압의 형태로 장애를 보는 관점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원인은 개인적 제한과 한계가 아니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장애인의 욕구가 사회조직 안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의 실패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장애는 손상 그 자체로서의 원인보다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활동의 제약과 차별, 배제 등의 사회적 장벽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 다. 장애인의 특성

장애는 인간의 생애발달주기에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장애를 가지게 된 시기는 한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서부터 이후 삶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생애발달주기 중 아동기는 성격 형성이나 자아정체성을 개발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오혜경(2005)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유아, 혹은 매우 어린 시기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래의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였을 때 신체상으로는 외형상으로는 정서, 행동, 혹은 언어 등의 지적인 발달에 있어 차이를 발견하게 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와 다른 아동과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종종 이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아동들과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나 가족들은 장애아동에 대해 과잉보호 혹은 방임, 학대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교사는 이들의 학습을 비롯한 발달과 성취를 낮게 기대하기도 하며, 주변사람들로부터는 놀라움과 두려움 혹은 경계하는 태도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박희찬(2005)의 연구에서는 장애를 갖고 성장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환경의 박탈이나 충분한 기회 또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적응기술들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비장애인으로 생활해 오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중도에 장애를 가지게 된 후천적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 10명 중 9명으로 손연숙, 허홍무, 박영숙(2009)은 중도에 장애가 발생하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거부, 비애감으로 휩싸이게 되고 치료 장면에 오래 남아 있길 희망하고 심지어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오혜경(2005)의 저서에서는 중도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의 심리적 특성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심리적 특성은 부정의 단계이다. 부정은 장애에 대한 최초의 심리적 반응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이며, 자신의 신체적 상실과, 상실과 관련된 사회적 의미를 거부하는 상태이다. 두 번째는 퇴행의 단계로 충격적인 손상 사건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방어기제의 활용으로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데 소극성을 보이며 재활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수동성을 보이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분노단계로 두려움을 없애려는 심리적 반응으로 불행을 거부하며, 화를 내기도 하는 등의 공격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장애의 기간이 좀 더 지난 후에 나타나며, 소극적인 공격행동으로 표출되며 적개심을 수반하기도 한다. 네 번째 단계로 불안 증세를 보인다. 장애를 하나의 위험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다섯 번째 단계로 나타나는 우울은 장애로 인한 상실감을 현실로 느낄 때 생기는 것으로 단순히 슬픈 감정에서부터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중도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적응은 신체적 적응과 함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이상의 여러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살아오는 과정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된 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장애등록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 2. 장애인의 경제활동

경제활동은 사회참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박정은(1995)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협의의 개념은 “사회참여는 한 사회집단이 그 필요와 요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광의의 개념의 사회참여는 “취업활동,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 활동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Davalko(1971)의 연구를 재인용한 이온죽, 장지연(1999)의 연구에서 사회참여는 직업적 참여와 직업외적 참여로 나눌 수 있는데 직업적 참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지만 아울러 직업을 통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사회적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직업외적 참여는 사회구조적 유연성을 높이고 삶의 기회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띠며 개인의 삶의 질적 향상과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 하였다. 신주화, 김성훈, 김병우(2009)는 사회참여에 있어서 노인, 만성질환자, 빈곤계층,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장애인이 사회의 부분이 되어 장애인이 속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활동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Mank and Buckley, 1989)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한승길(2013)은 사회통합이 장애인이 사회의 일부로 기능하며 그 사회에 소속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면, 사회참여는 장애인의 능동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춘 면이 강하다고 하였다. 우선미(2006)는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참여유형을 경제활동, 사회활동, 종교활동, 여가활동과 같이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활동에는 친목활동, 자원봉사활동, 시민단체 및 정치단체 활동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들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방법이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취업알선사업 공동수행기관, 워크넷에서 입력한 자료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서 2014년 4/4분기 결과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2.5%, 고용률은 49.4%인데 반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1.9%, 고용률은 19.8%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실업률은 남성 5.8%, 여성 9.3%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8.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8%의 순이다. 전체 인구에 비하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등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희(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은 개인별 장애특성, 개인적 경험, 교육 경력 등 다양한 조건이 고려되지 않고 장애유형별로 특정 직업을 고착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안마, 지적장애인은 단순 조립, 청각장애인은 기능직 등 장애유형별로 직업을 알선하는 것이 만연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제주도에 2014년 12월 현재 9곳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들에서는 복사용지, 토속된장, 소시지, 현수막, 농산물, 제과·제빵 등의 제조 및 판매, 물수건·대형 숙박시설의 빨랫감 세탁, 청소용역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지적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의 일반 업체에서는 관광기념품 생산, 음식점 서빙, 숙박시설 룸메이드, 안마사, 바리스타, 주차관리 등의 업무에 지적장애, 정신장애, 청각장애, 경증의 지체장애인들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참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이다. 직업은 장애·비장애 관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3. 경제활동영역 중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의 필요성

국립특수교육원(2004년)에서 출간한 자료에는 장애인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이고 이로 인해 장애인의 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09년에 발행된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장애이해교육은 ‘일반인에게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를 바로 잡아주고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백춘옥(2007)의 연구에서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 생활 속에서 돕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유명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장치에 대한 지도, 장애체험활동, 집단토의 등의 장애이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아진(2012)의 연구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은 통합교육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하고 있다. 조소이(2014)는 장애이해교육이라는 용어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식개선교육이라는 용어가 공식 문서에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해’라는 단어가 장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에 비해 인식개선은 학습자가 대상에 대해 기존에 형성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통합교육 정책시행의 중요한 내용으로 2003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권장되어 2008년부터는 각 급 학교에서는 연 2회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되도록 추진되었다. 2012년에 발표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의 내용에도 모든 학교에서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왔는데 김성애(2014)는 우리나라의 장애이해교육 연구자료 21편 중에서 장애이해체험교육의 내

용과 방법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흔히 사용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모의장애체험, 미디어, 지식전달, 동화·서적을 이용한 교육, 자료조사로 나타났는데 모의장애체험은 사람이 장애 때문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일반학생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불편함을 덜어주도록 도와 줄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의장애체험은 오히려 그 불편함이 강조되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가 더 크게 부가될 위험성이 있는데(김성애, 2014)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는 모의장애체험뿐만이 아니라 장애이해를 위한 이론교육의 결과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이론교육은 주로 장애유형과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등 장애에 대한 기초지식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가치관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교육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때로는 교육에 참여했던 아동들에게 장애와 비장애를 더 확실하게 구분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적인 측면 외에 교육을 진행하는 주체도 최근 몇 년사이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관(단체)의 종사자나 학교 교사들이 직접 교육진행을 담당해 오던 것을 지금은 장애당사자들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실제 사례로 국립재활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장애당사자들을 장애예방교육강사로 위촉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어울림’에서도 척수장애인들이 직접 장애경험담을 들려줌으로써 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장애 인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장애당사자들이 직접 교육현장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로는 Think First(미국 국가손상예방재단)에서 사고로 인한 뇌와 척수 손상예방을 목적으로 다양한 대상 연령대별로 교육 매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은수(2008)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실제로 뇌 또는 척수를 다친 장애인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아진(2012) 역시 활동중심의 장애이해교육방법 중 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은 구조화되지 않은 접촉과 구조화된 접촉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장애인과의 접촉이 반드시 긍정적인 태도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연구뿐

아니라 구조화되지 않은 단순한 접촉은 오히려 접촉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발표한 박현숙(1999)의 결과를 반박하면서 장애인해프 프로그램처럼 구조화된 접촉은 장애학생의 태도 개선 전력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Salend(2001, 재인용)는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을 직접 접하게 하여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강사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때 강사는 자신이 지금 당면한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장애당사자로서 장애를 가지기 이전의 생활과 장애를 가진 후의 변화된 삶, 장애의 원인 및 장애예방법,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등에 대해 함께 나눔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에 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제주도에서도 여러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당사자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로 직접 참여하고 있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2015년 4월 현재 17명의 강사가 활동 중에 있다. 교육 내용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해교육, 모의장애체험, 장애인식개선 동화구연, 시·지각 협응체험, 장애인스포츠체험, 수화 및 점자교실 등을 교육대상자의 연령과 특성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복지관 내부에 장애체험장을 개장하여 오감체험과 편의시설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주요 골자로 하여 장애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당사자가 진행하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2014)에서 진행하였는데 제주도내 각 급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담임교사 101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7%가 강사의 장애유무가 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당사자가 진행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서로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기존에 형성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4.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동원하여 "어떤 종류의 수행(성과창출에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역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Salomon(1984)은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제에는 많은 인지적 노력을 투자했고 높은 학습량을 획득했지만, 남이 쉽다고 생각하는 과제에는 노력을 덜 투자했고 낮은 학습량을 보였다는 것을 밝혔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이러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판단이며, 신념인 동시에 기대이다. Olson, Roese 및 Zanna(1996)는 "기대란 어떤 사태의 미래 상황에 대한 신념"이며, 기대란 과거의 경험과 지식(신념)혹은 다른 기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대"라는 용어는 문헌 등에서 대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나는 확률적 기대(probabilistic expectancy)로서 그것은 미래에 대한 신념, 혹은 지각된 유관 가능성/확률(contingency likelihood)을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규범적 기대(normative expectancy)로서 개인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는 의무감이나 규정을 의미한다(오인수, 2002).

Bandura(1977, 1986, 1991)도 확률적 기대가 인간의 동기와 행동에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인지적 모형을 통해 제안했었다. 그의 이론에서 개인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러한 확률적 기대는 "자기효능감(기대)"과 "성과기대(Outcome expectancy)"의 두 이름으로 나타난다. 자기효능감 기대는 "어떤 성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기대"로 성과기대는 "어떤 행동이 어떤 성과를 유도할 것이라는 개인의 추정/기대"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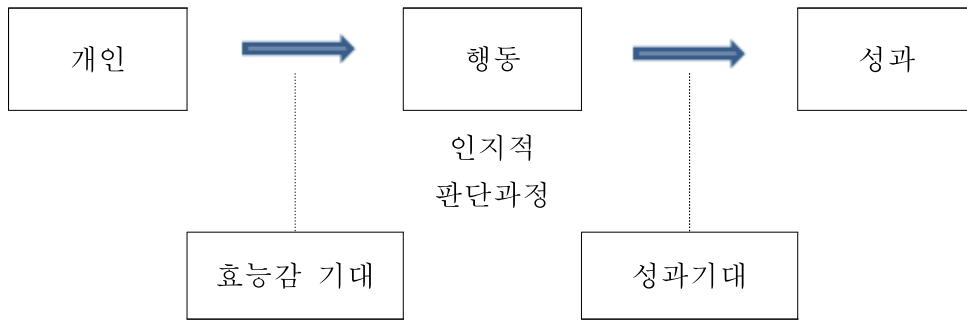


그림 1. 자기효능감 기대와 성과기대의 관계 도식: 오인수(2002)

위의 그림으로 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은 행동이전에 위치하고, 성과기대는 행동이후에 위치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선견(forethought), 성과기대는 후견(afterthought)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과기대와 자기효능감기대는 물론 관련성을 갖지만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어떤 특정한 일련의 행동들이 특정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믿을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즉, 확신이 없다면 그러한 성과기대에 대한 정보는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Bandura, 1977).

Bandura(1982)에 따르면 효능기대가 결과기대보다 인간 행동의 변화를 더 강력하게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효능기대가 결과기대보다 동기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효능기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노력의 양과 지속성은 증가하며,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갖는 사람, 즉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쉽게 포기하고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경험한다.

현대 직업세계에서는 직업적 경력을 통하여 변화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다방면의 인지적 기술과 자기관리 기술을 지닌 효능감 있는 개인을 요구한다(Bandura, 1995). 따라서 인간은 개인능력의 기제들을 통하여 자신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인과론적 귀인을 한다. 능력기제들 중에서 개인효능감에 관한 인간의 신념보다 핵심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은 없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미래의 상황을

다루는데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효능감 신념은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며, 자신을 동기화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효능감 신념은 직업개발과 추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적 요구 사항과 직업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한 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사람일수록 추구하고자 진지하게 고려하는 직업 선택의 범위가 넓고 관심의 범위도 넓다. 인간의 효능감과 관련된 신념은 네 가지 중요한 형태의 영향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강한 자기효능감을 창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성공 경험은 성공에 전념하는 것이 무엇이든 고무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Bandura, 1982; Biran & Wilson, 1981; Feltz, Landers, & Raeder, 1979; Gist, 1989). 성공은 강한 개인 효능신념을 형성하게 하며, 실패는 개인효능감 신념을 약화시킨다. 특히 효능감이 견고하게 형성되기 전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효능감 신념은 더욱 약화된다.

효능신념을 창조하고 강화하는 두 번째 효율적인 방법은 사회적 모델이 제공하는 대리경험을 통해서이다.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공한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보는 것은 자신 역시 유사한 활동을 완수하기 위한 능력을 지녔다는 관찰자의 신념을 고양시킨다(Bandura, 1986; Schunk, 1987; 재인용). 그 증거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자신의 효능감에 대한 관찰자의 판단을 낮추고 동기수준을 약화시킨다(Brown & Inouye, 1978). 모델이 개인효능감 신념에 미치는 영향은 관찰자가 모델과 자신을 유사하게 지각하는 것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관찰자가 자신과 모델을 유사하다고 가정할수록 모델의 성공과 실패가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만일 개인이 자신과 모델을 아주 다르게 보면, 그 개인의 개인효능감 신념은 모델의 행동과 행동이 낳는 결과에 의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닌 신념을 강화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 언어적 설득이다. 언어적 설득만으로 개인효능감 신념을 높이는 것은 신념을 약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 비현실적인 효능감 격려는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때 쉽게 흐지부지 된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득당해 온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활동에 도전하는 것을 회피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빨리 포기한다.

효능신념을 바꾸는 네 번째 방법은 신체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 성향을 줄이며, 신체 상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체반응과 정서반응의 강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강도, 수준, 일반성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각 차원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변한다고 하였다. 강도는 자기효능감의 각 수준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낸다. 수준이란 가장 쉬운 수행수준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수준까지 난이도의 정도에 따라 과제가 나누어지고, 과제 수행자가 어느 수준의 난이도까지 수행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되며, 일반성이란 어떤 대상, 어떤 상황, 어떤 행동항목에 관한 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까지 그 대상·상황·행동을 넘어 광범위한 일반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을 통해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고, 인간의 행동과 정서적 반응을 보다 정확히 예언할 수 있다고 한다. 김전홍(2010)에 의하면 높은 자기효능감의 소유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이 지닌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낮은 자기효능감의 소유자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효능감 신념은 네 가지 주요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 과정들은 인지, 동기, 정서 및 선택과정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별개가 아니라 협력하여 작용하며 인간 기능을 조절한다. 첫 번째로 인지과정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고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문제해결 기술은 많은 복잡성, 모호성,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인지적 처리를 요구하는데 실제로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적 요구를 다루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가 점점 더 산만해지고 포부가 낮아지며 수행의 질은 악화된다(Wood & Bandura, 1989). 반대로 탄력성 있는 효능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수행 성취를 이끄는 도전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훌륭한 분석적 사고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동기과정이다. 효능감 신념은 동기의 자기조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인간 동기는 인지적으로 생성된다. 사람들은 선견의 실행을 통해서 자신을 동기화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예상한대로 이끌어 나간다. 여러 이론들이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인지적 동기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과귀인, 결과 기대 및 인식된 목적이 그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이론들은 각각 귀인이론, 기대-가치이론 및 목적이론이다. 효능신념은 이러한 인지적 동기의 유형들 각각에서 작용하며 인과귀인에 영향을 미친다(Alden, 1986; Grove, 1993; McAuley, 1991). 자신이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노력부족이나 불리한 상황 조건에 귀인 시키는 반면, 자신을 비효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능력 부족에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인과귀인은 주로 개인적 효능신념을 통하여 동기, 수행 및 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Chwalisz, Altmaier, & Russell, 1992; Debus, & Walker, 1986; Schunk & Gunn, 1986). 기대-가치이론에서는 동기는 한 가지 주어진 행동 경로가 확실한 결과를 낳게 되고, 그 가치는 결과에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조절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세 번째는 정서과정이다. 대처능력에 대한 인간의 신념은 동기 수준뿐만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유발 인자를 통제하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불안 각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Bandura, 1991). 비록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 유발인자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 스트레스 인자를 다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침착한 반면,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들이 자신을 나약하게 한다고 믿는다.

네 번째는 선택과정이다. 인간은 부분적으로는 자기 환경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개인효능감 신념은 사람들이 지배하기 위해 선택한 활동과 환경의 유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람들의 삶이 취하는 과정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잠재 가능성과 생활양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의 선택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대처능력을 벗어나는 활동과 환경을 회피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는 환경을 선택하고 활동에 기꺼이 도전한다.



김아영과 차정은(1996)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을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설화하였다. 하위 요인들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정을 통해 조성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표출된다.

자신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거나 어떤 일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데 대하여 스스로 굳게 믿는 것을 말한다.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정의한 내용과 사전적 의미를 본 연구와 접목해 본다면 자신감은 장애인에게 주어진 업무(회사에서의 직무, 장애인식개선교육)를 진행할 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의 경우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연령층에 맞는 강의기법,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 대해 스스로 잘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고자 할 때의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과 자기판단 그리고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문제해결 또는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조직적으로 수립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맞닥뜨린 상황들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말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활동과 연결지어 설명한다면 외부기관으로부터 교육의뢰가 들어왔을 때 강사가 교육일정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결정하고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대안을 수립하는 등 관련된 상황을 스스로 조절하고 실행함으로써 강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어렵더라도 어려운 쪽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활동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교육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상층의 연령과 욕구,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육내용을 개발·적용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을 안정되게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와 같이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말하며, 두 번째, 자기조절효능감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문제해결 또는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조직적으로 수립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맞닥뜨린 상황들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어렵더라도 어려운 쪽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호도를 말한다.

## 5. 선행연구 고찰

### 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는 심심치 않게 이뤄져 왔다. 류시문(2003)의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특히, 경제활동참여여부나 직종, 근로소득과 같은 경제활동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이 여성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교육, 복지제도 및 서비스 이용 등의 변수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영역의 특성이 주요 영향요인이며,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취업 및 직업 훈련 등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길(2013)은 척수장애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경제수준과 경제스트레스는 척수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한성과 이유신(2014)은 가구소득과 취업여부, 여가활동유형 모두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취업장애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미취업 장애인에 비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순미(1992)의 연구결과에서도 우울감이 높고, 극단적 사례로 자살률이 높은 장애인인 척수손상 장애인의 경우에도 직업을 통해 적절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그만큼 삶의 좌절을 극복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자신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우울감 등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그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인 장애인 강사에 의한 장애예방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를 연구한 김은수(2008)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강사에 대한 호기심과 동질감을 바탕으로 강사들이 경험한 장애를 간접체험하게 되고, 비로소 사고로 인한 장애를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장애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이 장애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러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5가지 수칙을 설명하여 실천기술을 알려줌으로써 장애예방 행동에 대한 효능신념, 자기효능감, 실천 의도가 형성되었다. 또한 장애인 강사를 통해 이전에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깨달은 장애예방의 중요성과 장애인 차별 금지 메시지를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였고, 이 교육이 확산되기를 희망하였다.

김유리(2012)의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초등학생의 장애인식과 활동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 실시유무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을 이룬교

육, 이론교육+모의 장애체험, 이론교육+모의 장애체험+골든벨, 이론교육+모의 장애체험+골든벨+장애아동 통합협력활동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선호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단계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이해교육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및 사고경각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영아(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이해교육프로그램을 받은 비장애아동들의 장애아동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장애아동에게 느끼는 친근감, 사고경각심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강사가 직접 장애에 대해 강의함으로써 장애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사고경험담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사고전후의 모습을 봄으로써 사고경각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이라 하겠다.

박아진(2012)의 연구에서도 장애이해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후 초등학교 저학년 비장애학생의 장애수용태도, 공감, 이타행동과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비장애학생의 수용태도와 공감, 이타행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초등학교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비장애인의 장애인 이해의 기회를 만들고, 장애인의 긍정적 활동을 유도하며,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그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다.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 연구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은복(2008)의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작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작업생산성의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고, 사회적 지지 요인 중 가족 및 후원자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작업생산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자신감 수준, 가족 및 후원자 지지 수준이 중간인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작업 목표량 완수율이 높고, 모든 요인들이 각각 높을수록 작업 참여태도가 좋고,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을수록 작업수행정도가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작업생산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여성이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 선호가 더 높고, 작업실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선택 시기 이후인 2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고 작업실수가 낮았으며, 근속년수 2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고 작업수행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인택(2012)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가족구성, 건강상태와 경제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가족구성 형태는 가족을 이루고 살 때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고, 경제력이 약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교통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주영(2014)이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는 결혼상태에 따라, 교육수준, 직업상태, 소득수준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상태는 미취업 집단에 비해 재직 중인 교통장애인과 휴직상태인 교통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장애인은 높은 소득 수준의 집단이 낮은 소득수준의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근로자의 삶의 만족 요인에 관한 인과관계 분석을 연구한 임수정(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주요특성별 삶의 만족도의 차이 검증한 결과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 학력, 혼인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연령과 장애 관련 요인들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자집단이,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김전홍(2010)의 재가지체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와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정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직업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보다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 활동은 그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2014년 12월말 현재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32,989명 중 신체적 장애인은 28,568명, 정신적 장애인은 4,421명이다. 그중 만 20세 이상에서부터 만 60세 미만의 장애인은 15,063명이며, 이들 중 남성장애인은 9,816명, 여성장애인은 5,2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중 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방법으로 유목적표집법을 사용하였는데 경제활동영역 중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는 도내 2개 기관에서 활동 중인 강사 17명 전원을 조사하였다.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성장애인 1명을 면접 조사하여 연구결과 해석의 보충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57명의 장애인은 미취업 장애인 15명, 업체취업 장애인 25명,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17명으로 구성되었다.

#### 2. 측정도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기존에 출판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헌들과 척도들을 종합 분석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24개 문항 5점 Likert척도로서 ‘매우 그렇다’가 5점, ‘그렇다’가 4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지 않다’가 2점,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들의 자기효능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6, 7, 20, 23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김아영과 차정은(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7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679였다.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자신감	1,2,3,4,5,6,7	7
자기조절효능감	8,9,10,11,12,13,14,15,16,17,18,19	12
과제난이도	20,21,22,23,24	5
계	24	

### 3. 연구절차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연구 설계 및 설문지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15년 4월 중 미취업 장애인은 연구자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차 방문한 장애인들에게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업 장애인은 사회복지법인 춘강 장애인근로센터와 도내 장애인 고용업체 6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강사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 받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다. 이분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설문을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는 2010년부터 강사활동에 참여한 이후 심리적 재활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장애인으로 당사자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요인, 자기조절효능감 요인,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변량분석(t/F)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는 총 57명으로 미취업 장애인 15명, 업체취업 장애인 25명,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17명으로 구성되었다.

남성은 20명(35.1%), 여성은 37명(64.9%)의 성별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은 30세 미만이 2명(3.5%), 31~40세가 16명(28.1%), 41~50세가 24명(42.1%), 51~60세가 15명(26.3%)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신체적장애가 55명(96.5%), 정신적장애가 2명(3.5%)을 차지하였다. 장애등급별로는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1~2급 장애인이 32명(56.1%), 경증장애에 해당되는 3~6급의 장애인이 25명(43.9%)을 차지하였다.

장애발생 시기는 0~3세가 22명(38.6%), 4~18세가 18명(31.6%), 19~60세가 17명(29.8%)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70.2%의 장애인이 직업선택기 이전인 18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애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7명(82.5%)이었으며, 재해사고가 10명(17.5%)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하가 8명(14.0%),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27명(47.4%), 대학교 졸업이상은 22명(38.6%)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42명(73.7%)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5명(26.3%)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1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5명 모두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영역의 경우에는 미취업 15명(26.3%), 업체 취업 25명(43.9%),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17명(29.8%)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로 활동 중인 17명을 대상으로 '강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응답하도록 했는데 1순위는 자신의 역량강화에 대한 기대감(N=14)이, 2순위는 장애당사자로서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따른 사명감(N=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38명(66.7%),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14명(24.6%), 200만원 이상인 5명(8.8%)으로 나타났다.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0	35.1
	여성	37	64.9
연령	30세 미만	2	3.5
	31~40	16	28.1
	41~50	24	42.1
	51~60	15	26.3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55	96.5
	정신적 장애	2	3.5
장애등급	1~2급	32	56.1
	3~6급	25	43.9
장애발생시기	0~3세	22	38.6
	4~18세	18	31.6
	19~60세	17	29.8
장애발생원인	질병	47	82.5
	재해사고	10	17.5
학력	중졸 이하	8	14.0
	고졸 이하	27	47.4
	대졸 이상	22	38.6
경제활동여부	참여함	42	73.7
	참여하지 않음	15	26.3
경제활동영역	미취업	15	26.3
	업체취업	25	43.9
	강사활동	17	29.8
강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직원 또는 주변의 권유로	5	14.7
	자유로운 근무시간	1	2.9
	사명감으로	12	35.3
	강사역할에 대한 매력	2	5.9
	역량강화에 대한 기대감	14	41.2
월수입	100만원 미만	38	66.7
	100~200만원 미만	14	24.6
	200만원 이상	5	8.8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신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t/F)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자신감은 학력(F=5.533,  $p<.01$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22.56)과 대학교 졸업이상(23.05)이 중학교 졸업이하(16.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 가족관계,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V-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신감

항목		N	M	SD	t/F	p	Scheffé
성별	남자	20	23.15	6.26	1.672	.201	ns
	여자	37	21.16	5.12			
연령	30세 미만	2	17.50	3.54	.589	.625	ns
	31~40	16	22.88	3.46			
	41~50	24	21.71	5.36			
	51~60	15	21.60	7.70			
가족관계	혼자	9	20.44	6.33	1.214	.305	ns
	배우자+자녀	42	22.52	5.41			
	부모+형제	6	19.33	5.39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55	22.00	5.59	.994	.323	ns
	정신적장애	2	18.00	4.24			
장애등급	1~2급	32	22.41	5.62	.698	.407	ns
	3~6급	25	21.16	5.55			
장애발생 시기	0~3세	22	23.23	4.37	1.177	.316	ns
	4~18세	18	20.61	5.59			
	19~60세	17	21.41	6.77			
장애발생 원인	질병	47	21.26	5.47	3.279	.076	ns
	재해사고	10	24.70	5.42			

항목		N	M	SD	t/F	p	Scheffé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a)	8	16.25	5.97	5.533	.007	a<b a<c
	고졸 이하(b)	27	22.56	5.61			
	대학교 졸업이상(c)	22	23.05	4.23			
적성여부	예	22	23.55	3.39	1.960	.151	ns
	아니오	3	23.00	3.00			
월수입	100만원 미만	38	20.95	6.35	1.619	.208	ns
	200만원 미만	14	23.43	3.18			
	200만원 이상	5	24.40	2.07			

####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은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관계( $F=3.757$ ,  $p < .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와 형제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36.17)이 다른 가족형태(혼자: 28.78, 배우자+자녀: 29.6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항목		N	M	SD	t/F	p	Scheffé
성별	남자	20	30.05	4.72	.022	.883	ns
	여자	37	30.30	6.61			
연령	30세 미만	2	34.00	0.00	.745	.530	ns
	31~40	16	29.19	6.37			
	41~50	24	31.17	6.00			
	51~60	15	29.27	5.85			
가족관계	혼자(a)	9	28.78	6.16	3.757	.030	a<c b<c
	배우자+자녀(b)	42	29.67	5.65			
	부모+형제(c)	6	36.17	5.27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55	29.96	5.90	2.766	.102	ns
	정신적장애	2	37.00	4.24			
장애등급	1~2급	32	29.50	6.10	1.034	.314	ns
	3~6급	25	31.12	5.80			

항목		N	M	SD	t/F	p	Scheffé
장애발생 시기	0~3세	22	29.09	5.86	1.908	.158	ns
	4~18세	18	32.44	6.08			
	19~60세	17	29.29	5.67			
장애발생 원인	질병	47	30.77	5.94	2.376	.129	ns
	재해사고	10	27.60	5.66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8	31.50	4.75	.938	.398	ns
	고졸 이하	27	30.93	6.76			
	대학교 졸업이상	22	28.86	5.27			
적성여부	예	22	31.41	5.37	.751	.477	ns
	아니오	3	30.33	5.51			
월수입	100만원 미만	38	30.66	6.37	.391	.678	ns
	200만원 미만	14	29.64	5.85			
	200만원 이상	5	28.40	2.30			

####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는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V-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

항목		N	M	SD	t/F	p	Scheffé
성별	남자	20	14.20	1.91	.212	.647	ns
	여자	37	14.43	1.77			
연령	30세 미만	2	14.50	2.12	1.886	.143	ns
	31~40세	16	13.94	1.53			
	41~50세	24	14.04	1.90			
	51~60세	15	15.27	1.75			
가족관계	혼자	9	14.00	2.00	.549	.580	ns
	배우자와 자녀	42	14.33	1.79			
	부모형제	6	15.00	1.79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55	14.35	1.82	.014	.907	ns
	정신적장애	2	14.50	2.12			

항목		N	M	SD	F	p	Scheffé
장애등급	1~2급	32	14.75	1.67	3.730	.059	ns
	3~6급	25	13.84	1.89			
장애발생 시기	0~3세	22	14.05	1.79	.686	.508	ns
	4~18세	18	14.72	1.81			
	19~60세	17	14.35	1.87			
장애발생 원인	질병	47	14.34	1.70	.009	.926	ns
	재해사고	10	14.40	2.37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8	14.00	2.27	.367	.695	ns
	고졸 이하	27	14.56	2.04			
	대학교 졸업이상	22	14.23	1.31			
적성여부	예	22	14.45	1.77	1.960	.908	ns
	아니오	3	14.00	1.73			
월수입	100만원 미만	38	14.21	1.93	1.064	.352	ns
	200만원 미만	14	14.93	1.44			
	200만원 이상	5	13.80	1.64			

### 3.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

#### 가. 경제활동에 따른 자신감

경제활동에 따른 자신감을 확인한 결과인 표 IV-5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은 자신감( $F=6.128, p<.05$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22.90)이 하지 않는 장애인(18.93)보다 자신감이 높다. 이 결과는 취업여부가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재순, 2010; 김한성, 이유신, 2014; 임동진, 문상호,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로써 본 연구의 가설 1-1의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IV-5. 경제활동에 따른 자신감

항목		N	M	SD	F	p
경제활동	예	42	22.90	4.18	6.128	.016
	아니오	15	18.93	7.77		

**나.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을 확인한 결과인 표 IV-6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은 자기조절효능감( $F=1.761, p>.05$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로써 본 연구의 가설 1-2의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IV-6. 경제활동에 따른 자기조절 효능감

항목		N	M	SD	F	p
경제활동	예	42	30.83	5.63	1.761	.190
	아니오	15	28.46	6.70		

**다. 경제활동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

경제활동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는 표 IV-7의 내용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제활동은 과제난이도 선호( $F=.499, p>.05$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로써 본 연구의 가설 1-3의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IV-7. 경제활동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

항목		N	M	SD	F	p
경제활동	예	42	14.45	1.71	.499	.483
	아니오	15	14.06	2.08		



#### 4.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효능감

##### 가.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신감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신감( $F=3.406,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영역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에 대해 Scheffe 검증한 결과, 미취업 장애인(18.93)의 자신감에 비해 업체취업 장애인(23.48)과 강사활동 장애인(22.06)의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체취업은 경제활동에 따른 보수가 일정하게 주어지는 반면, 강사활동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보수도 고정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활동 횟수에 비례하여 지급됨으로써 규모가 다소 불규칙적인 것과는 달리 업체취업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로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월급 형태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여 경제 운용을 계획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가설 2-1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IV-8.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신감

항목		N	M	SD	F	p	Scheffe
경제활동 영역	미취업(a)	15	18.93	7.78	3.406	.040	a<c
	업체취업(b)	25	23.48	3.29			
	강사활동(c)	17	22.06	5.23			

##### 나.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F=1.043, p>.05$ )은 경제활동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설 2-2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IV-9.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조절효능감

항목		N	M	SD	F	p	Scheffé
경제활동 영역	미취업	15	28.47	6.71	1.043	.359	ns
	업체취업	25	31.28	5.28			
	강사활동	17	30.18	6.24			

#### 다.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F=.720, p=.764 > .05)는 경제활동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설 2-3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IV-10.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과제난이도 선호

항목		N	M	SD	F	p	Scheffé
경제활동 영역	미취업	15	14.07	2.09	.270	.764	ns
	업체취업	25	14.40	1.73			
	강사활동	17	14.53	1.74			

### 5.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활동 사례

아래의 내용은 10여년 전 교통사고로 척수장애를 가지게 된 후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던 강○○씨가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장애를 수용하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자기효능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를 손연숙, 허홍무, 박영숙(2009)이 제시한 중도장애인의 독립성 과정(막연한 호전에 대한 기대단계, 현실 인식에 따른 좌절단계, 삶의 욕구를 자각하는 단계, 자기조절단계, 변화된 삶을 통합해 가는 단계)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경제활동 참여가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IV-11.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강○○씨의 일반적 사항

성별	남	연령	54
가족관계	배우자, 1남 2녀		
장애유형	지체(척수)	장애등급	1급
장애발생 원인	교통사고	장애발생 시기	44세
강사활동기간	2010년 7월부터 ~ 2015년 4월 현재까지		
장애상태	- 휠체어를 사용 중이며, 독립적 신변자립생활 가능함. - 승용차로 혼자 이동 가능함.		

### 가. 막연한 호전에 대한 기대단계

사고나 질병으로 성인기에 장애가 발생한 초기에는 의료인이나 가족들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중도장애인들은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건강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장애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호전 기대감을 가지고 병원의 짜여진 계획대로 재활치료를 받는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의료인이나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긍정적으로 치료 과정에 잘 순응한다.

- 장애를 가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축산 농장을 경영하여 제법 규모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켜서 우수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경험이 있다. 결혼 이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평범한 가정을 이뤄 비교적 안정된 삶을 영위해 오던 중 2005년 12월 교통사고로 척수(경추)를 다치게 되면서 하반신 마비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 제주도에서 수술을 받고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정도가 되자 도외 지역의 큰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까 하여 서울로 올라가서 대학병원, 한방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2년 가까이 병원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삶까지 붕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서울생활을 접고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고 시골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재활치료에 필요한 구조로 전면개조하고 재활운동에 전념하였다.

## 나. 현실 인식에 따른 좌절단계

이 시기의 중도장애인들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 몸 상태에 대한 부정과 거부감으로 가족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는 창피하고 무시한다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만남을 기피하게 되고 밖에 나갈 용기를 잃어간다. 자신의 허물어져 가는 이미지를 보며 자기연민, 자책감, 분노의 감정이 거듭 반복되면서 자아가 상실되어간다. 극단적인 경우 충격과 좌절로 괴로워하며 자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해 본 경험들이 있으나 마비된 몸으로는 자살도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인식해 하면서 참담해 한다. 중도 장애인들은 이 시기를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기로 기억하고 있다.

- 중도장애인의 경우 개인차가 있겠지만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24시간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마약에 가까운 진통제를 항상 복용해야 하고, 사고 이후부터 생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치료제도 계속 복용해야만 한다. 매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고, 가족들 특히, 부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한때는 ‘못된 행동을 해서라도 부인을 놓아줘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지금은 운전도 직접하고 다닐 만큼 많이 나아졌지만 장애 초기에는 병원치료를 받으러 가야할 때마다 차까지 부인의 등에 업혀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심지어는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죽는 것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죽을 수도 없었다. 처음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내가 휠체어에 탄 몸으로 바깥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계속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강사교육을 처음 받으러 왔을 때까지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다. 삶의 욕구를 자각하는 단계

중도장애인들은 점진적으로 장애를 인식해 가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나 사랑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가족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선배나 동료장애인들이 열심히 밝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자의식, 가족에 대한 의무감, 동료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장애를 수용하게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해 봐야 되겠다’는 자기 확신과 재활의욕을 갖게 된다.

- 사고발생 후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부터 외부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척수장애인 자조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1년에 강사교육이 있다고 하여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평소 다른 사람의 얘거나 교육을 받는 것을 좋아하여 강사교육도 그냥 일회성으로 참여해보자 생각해서 참여했던 게 지금까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강사활동을 위한 기초교육은 받았지만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가 있는 상태여서 그런 상태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족들의 우려도 있었다.

- 지금도 잊히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강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배강사들이 진행하는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휠체어를 타고 유치원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던 아동이 “진짜 장애인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황당한 적이 있었다. 애들은 중증장애인은 진짜 장애인이라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3~4년이 흐른 지금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 강사활동 후 가족들이 무척 좋아한다. 처음엔 학교로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제주시내 모 여고에서 교육을 진행하던 중 그 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이걸 정말 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걱정했던 가족들도 그렇고 특히 자녀들이 아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무척 신기해한다.

## 라. 자기조절단계

중도장애인들은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데 많은 대처 방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신체적인 문제를 현실적 상황과 부딪히며 문제들을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비교적 빨리 극복해 나간다. 정서적인 문제는 여유시

간과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사회적인 문제는 취업이나 모임을 통해 동료 장애인과 교류를 통해 알고, 성적 문제는 부부간의 대화와 취미생활을 통해 대처해 간다.

자기 확산 속에서 대처 전략을 채택해 가는데 동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족 등의 지지체계의 협조가 필요하며, 수행결과에 대한 효과를 체험한 것이 행위를 더욱 촉진시킨다. 반면에 경제적 부담감이 있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활동상 많은 부분이 제한된다.

- 강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약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교육을 진행하고 돌아온 날은 굉장히 기분이 즐겁다. 내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돌아왔지만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돌아온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다.
- 강사활동 전에는 과거 자신의 상황만 떠올리면서 변화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장애를 인정해 버리면 장애인, 비장애인이 서로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줄 알았다. 그때까지도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했고 자존심이 강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뭐가 다르냐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실제 다른 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마. 변화된 삶을 통합해 가는 단계

중도장애인들의 변화된 생활 속에 독립적인 삶을 주관적으로 지각하면서 조화를 이뤄가는 단계이다. 중도장애인들은 장애상태를 그들 삶속에 새로운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또한 행동수행에 대한 통제력도 증가되고, 변화된 생활 속에서 자유로움과 평온함, 질서, 재미 등을 경험한다. 또 자신의 현재 상황을 넘어 미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 사고 전에는 가족 간에 다툼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장으로써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다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재활치료만 신경 쓰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놓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인과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고민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 시기를 잘 견뎌내 준 가족 모두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자주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다.

- 2011년부터 강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 5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사실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다. 작년 봄에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는 많은 생각들로 복잡한 상황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장애당사자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부분에서 잠시 흔들렸던 것 같다. 언젠가부터 조금씩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결정까지 내리게 되었다. 이때 복지관 담당자의 지지와 한 번 더 용기를 내보자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지금까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 돌아온 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 사실 학교에서 1교시부터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날에는 씻는 일부터 모든 일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한다. 밤새 통증을 느낀 다음날이어도 예외는 없다. 오히려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자칫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같다. 아이들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어서 좋고, 전혀 가식 없는 행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나 자신도 말할 수 없이 좋다. 성인들하고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학교에 가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좋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성장할 때와는 달리 강사가 얘기를 마치고 나올 때면 살포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돌아서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종이를 들고 와서 사인을 해 달라는 아이들도 있다. 이때는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 마음은 채워서 보이는 게 있고, 비워서 보이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멈춰 섰을 때 보이는 게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사람은 같은 걸 보더라도 다들 자기만의 해석으로 세상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생각이나 상황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장애를 갖기 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장애를 가지게 된 후에는 돈이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작은 관심이라도 상당히 힘이 된다. 작은 일에 상처도 많이 받지만 작은 일에 힘을 얻기도 한다. 그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인간의 생애발달주기에서 40대는 가정적으로나 직업적·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으로 살아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강○○씨의 경우에서와 같이 중도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계획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한 심리적 문제, 직업의 상실,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등 복합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기도 한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족구성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기게 되면서 작게는 실내 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개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재활치료에 따른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독립적으로 생활해 오던 가족 중 누군가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함께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중도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수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강○○씨의 경우 비록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강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장애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수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서서히 사회활동을 재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강○○씨도 장애발생 후 2년여라는 기간 동안 손연숙, 허홍무, 박영숙(2009)과 오혜경(2005)의 저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도장애인이 겪게 되는 심리적 과정(부정, 퇴행, 분노, 불안, 우울)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씨는 재활과정에 있어서 가족의 지지와 기관 담당자의 심리적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박정숙(2001), 이옥선(2000)의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재활동기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동일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재활동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재활동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씨는 전신마비라는 최초의 진단명이 무색할 만큼 지금은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지만 사실 강○○씨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업체에 취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만일 강○○씨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한다면 실제로 고용 가능한 업체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중증장애가 오히려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에서는 교육효과를 상승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실제 지금은 건강상태와 개인공부를 위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계신데 이 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중증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는 참여해 보지 않았던 분이다. 그러나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은 물론 지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경제활동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되는 부분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류시문, 2003; 이은복, 2008)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 VI.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진행되었다. 또한, 경제활동영역(미취업, 업체취업,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활동)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라는 영역을 장애인의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학력은 자신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가족관계는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신주영(2014)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특히 직업상태는 미취업 집단에 비해 재직중이거나 휴직상태인 교통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은복(2008)의 연구결과 즉,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의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고, 사회적 지지요인 중 가족 및 후원자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김민영(2013)은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본 연구결과를 그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학력수준을 높이고 이를 위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은 자신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참여여부나 직종, 복지제도 및 서비스 이용 등의 변수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영역의 특

성이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류시문(2003)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통해 적절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그만큼 삶의 좌절을 극복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자신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박순미(199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은 대부분 단순하게 반복처리를 요하는 생산직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자기관찰이나 자기판단 그리고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생성된 자신감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 능력과 장애발생 이후에 잔존해 있는 기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무엇보다 필요하겠겠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하위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업체취업 장애인(23.48)과 강사활동 장애인(22.06)의 자신감이 미취업 장애인(18.9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업체취업 장애인과 강사활동 장애인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취업과 미취업 장애인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업체취업과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관점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에 대해 업체취업과 강사활동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업체취업은 경제활동에 따른 보수가 일정하게 주어지는 반면, 강사활동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보수도 고정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활동 횟수에 비례하여 지급됨으로써 규모가 다소 불규칙적인 것과는 달리 업체취업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로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월급 형태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여 경제 운용을 계획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규칙적인 강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에 따른 보수도 안정되게 지급한다면 이들의 자기효능감은 다른 경제활동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에서부터 만 60세 미만의 성인장애인 총 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장애인 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하여 연구결과 해석의 보충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중 학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부모와 형제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다른 가족형태(혼자 또는 배우자+자녀)보다 높다.

둘째,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자신감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고,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경제활동영역은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자신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의 경제활동영역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Scheffé 검증한 결과, 미취업에 비해 업체취업과 강사활동은 높지만 업체취업과 강사활동의 차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자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라는 사회참여 활동을 중증장애인들의 일반적 경제활동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했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총 57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집단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소 적은 사례이고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라는 영역에 장애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제주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7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강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강사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이 안정되었다고 여겨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수행한다면 강사활동과 다른 취업활동 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를 소재로 누가 진행하든 교육에 참여만 하면 장애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어져 왔고, 교육 진행여부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의 진정한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장애당사자로 변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풀어내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연구들이 장애이해교육의 효과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었던데 반해 본 연구는 장애당사자의 경제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에게 있어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취업 또는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영역에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라는 영역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와 관련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서 매년 제공하는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4월 한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시·청각 자료 관람, 모의 장애체험, 외부강사 초청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성이 지속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없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증 장애당사자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 2회 진행하는 교육 중 최소 1회 이상은 교육의 주체를 장애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현재의 강사 인원으로는 강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애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가칭)를 설립하여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역량 있는 중증 장애당사자를 발굴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예기치 않게 장애를 가지게 된 중도장애인들의 재활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비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생활해 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적응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도장애인에게 있어 성공적인 재활이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적응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를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인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급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성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현미(2009). 반 편견 동화책 읽어주기를 통한 장애체험활동이 일반유아의 장애유아 인식 및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대부설행동과학연구소(2000). 심리척도 핸드북 2. 서울: 고대부설행동과학연구소.
- 고은, 목홍숙(2013).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거리감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 국립특수교육원(2004). 중·고등학생 장애이해교육.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김민영(2013). 장애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사회적 자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성애(2014). 우리나라 장애이해교육의 의미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14(2).
- 김아영, 차정은(1995). 자기효능감과 측정,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 발표대회.
- 김연실, 권명진, 김시경(2012). 장애인근로자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우울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1(2).
- 김유리(2012).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과 활동선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8). 장애주제 동화 제시방법이 일반유아의 장애인식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수(2008). 장애인 강사에 의한 장애예방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전홍(2010). 재가지체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우(2010). **다원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우리나라 장애이해교육의 발전방향**,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주, 김수연(2013). 초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에 활용된 동화에 나타난 장애  
인관 분석, **특수교육**, 12(2)
- 김한성, 이유신(2014). **장애와 고용**, 24(4).
- 남연희, 채인석, 이승준, 천덕희, 김영삼(2011). 척수손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2).
- 남혜진, 박승희(2014). 다양성 이해교육프로그램이 초등 통합학급 학생들의 공  
감능력 문화적 민감성 및 장애수용태도에 미친 효과, **특수교육**, 13(3).
- 박순미(1992). **척수장애자의 일상생활 동작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연세대  
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진(2012). **장애이해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비장애학생의 장애수용태도,**  
**공감,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아(2010).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이해교육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및 사고경각심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2001). **척수장애인에 대한 가족지지가 재활동기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1995). **초기 여성노인의 사회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
- 박정희(2015). **가족기능성과 자기효능감이 중년 남성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  
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진(2002). **자기애, 자기효능감, 자의식 및 우울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찬(2005). **2015 직업재활 워크샵 자료 중 직업적응훈련**, 제주특별자치도장  
애인종합복지관.
- 백춘옥(2007). **장애이해교육의 실태에 대한 반성적 고찰**. 청주교육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경희(2005). 2015 직업재활 워크샵 중 장애인의 심리적 이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변소현(1998). 장애인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연숙(2007). 성인중도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연숙, 허흥무, 박영숙(2009). 중도장애인과 가족, 서울: 범문사.
- 송경렬(2014).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민정(2014).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영(2012). 장애인의 취업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성별과 장애정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재활학회, 22(3).
- 신주영(2014). 교통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재활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광웅(2009). 장애에 대한 심리적 이해, 제15회 한국재활심리학회 연수회.
- 오인수(2002). 일반적 자기효능감: 개념, 측정관련 이슈와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15(3), 49-72.
- 오혜경(2005). 장애인복지론, 서울: 창지사.
- 우선미(2006).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수경(2000).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프로그램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태완, 김성철, 김용환, 최금주, 허영숙(2010). 장애인복지론, 서울: 창지사.
- 윤운성, 정정옥, 가경신(2004). 변화하는 사회속에서의 자기효능감(알베르트 반두라 편저), 서울: 학지사.
-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경기: 공동체.
- 이달엽(2005). 2015 직업재활 워크샵 자료 중 직업개발과 직업배치.

- 이달엽(2013). 우리나라 장애인고용패널의 주요 특성, 장애수용, 일상생활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56(1).
- 이상철(2010). 한국의 복지고용정책에 관한 연구-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선(2000). 척수장애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와 재활동기간의 관계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 장지연(1999). 여성, 가족, 사회, 서울: 세영사.
- 이은복(2008).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가 작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성(2013). 중도 지체장애인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2006).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순(2010). 고용이 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열(2013).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중증장애인고용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동진, 문상호(2014).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이 경제활동실태와 자활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및 장애인 고용의무정책의 효과성,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 임수정(2010). 장애인근로자의 삶의 만족 요인에 관한 인과관계분석,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인택(2012). 장애인의 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진(2012). 후천적장애인이 특수체육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고찰,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재(2007).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재활상담기법 및 중재방안, 특수교육저널, 8(2).

- 조소이(2014).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교육이 비장애학생들의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임영(2015).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의 개념, *동아법학 제66호*.
- 조흥식, 김홍식, 신은주, 우국희, 오승환(201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최은영(2007). 장애의 심리적 영향, 제11회 한국재활심리학회 연수회.
- 통계청(2015). 2015년 2월 고용동향.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2003). 장애인 근로자 취업 특성 분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4).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4).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 한승길(2013). 척수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숙민(2013). 중도장애인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방법전공 박사학위논문.
- 황상희(2013). 취업 척수손상장애인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den, I. (1986). Self-efficacy and causal attributions for social feedbac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460-473.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y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1). Self-efficacy conception of anxiety. In R. Schwarzer & R. A. Wicklund (Eds.), *Anxiety and self-focused attention* (89-100). New York: Harwood.
- Biran, M., & Wilson, G. T. (1981). Treatment of phobic disorders using cognitive and exposure methods: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886-899.
- Brown, I., Jr., & Inouye, D. K. (1978). Learned helplessness through modeling: The role of perceived similarity in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00-908.

- Chwalisz, K. D., Altmaier, E. M., & Russell, D. W. (1992). Causal attributions, self-efficacy cognitions, and coping with str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1*, 377-400.
- Feltz, D. L., Landers, D. M., & Raeder, U. (1979). Enhancing self-efficacy in high avoidance motor tasks: A comparison of modeling technique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 112-122.
- Gist, M. E. (1989). The influence of training method on self-efficacy and idea generation among managers, *Personnel Psychology, 42*, 787-805.
- Grove, J. R. (1993). Attributional correlates of cessation self-efficacy among smokers. *Addictive Behaviors, 18*, 311-320.
- Mank, D. M., & Buckley, J. 1989. Strategies for integrated employment in W. E. Kiernan, & R. L. Schlock(Eds). Economics, industry, and disability: A look ahead. Baltimore: Paul Books Publishing.
- McAukey, E. (1991). Efficacy, attributional, and affective responses to exercise participa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3*, 382-393.
- Olsen, J. M., Roese, N. J., & Zanna, M. P. (1996). Expectancies. In E. T. Higgins and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218-238). New York: Guilford Press.
- Suhunk, D. H. (1987). Peer models and children's behavioral chang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 149-174.
- Salomon, G. (1984). Television is "easy" and print is "tough": The differential investment of mental effort in learning as a function of perceptions and attribu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647-658.
- Suhunk, D. H., & Gunn, T. P. (1986). Self-efficacy and skill development: Influence of task strategies and attribution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9*, 238-244.
- Wood, R., & Bandura, A. (1989). Social cognitive theor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 361-384.

<Abstract>

## Self-Efficacy According to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Kim, Jeong-ok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eong-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self-efficacy is expressed depending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and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and data to expand new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Therefore this researcher tried to prove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self-efficacy (self-confidence, self-regulating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In addition, it was tried to reveal the self-efficacy varies with the economic activity area, that is, employment and educational lecturers' activities in improving the awareness in the disability. The issues of the research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like this are presented as follows:

Issue 1.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and self-efficacy?

Issue 2. Does the self-efficacy vary with the economic activity areas of the disabled?

The survey was made for the total 57 adults with disabilities from 20 years old to more than 20 years old residing in Jeju Island and used an interview with a male adult with disability who performs a role of lecturer improving the awareness in disabilities as a supplement data.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efficacy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out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s higher in the family residing with the parents and siblings than other family types (single or spouse + children).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conomic activities of disabled on the self-efficacy,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elf-regulating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but on the self-confidence.

Third, according to the effects of economic activities by the disabled on the sub-elements of self-efficacy,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elf-regulating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but on the self-confidence as shown in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disabled.

Fourth, according to the Scheffé verification on the differences of self-efficacy depending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the employment and lecturer activities were higher than the unemployment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employment and lecturer activities was not found. These results were a little bit hard for this research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hich intended to use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severely disabled as a lecturer for improving the awareness in disabilities as basic data to expand to the area the general economic activity area of the severely disabled

This study was made based on the survey of total 57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was hard to reveal whether the lecturer activities affect the self-efficacy in that these cases are a little bit small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systematically, especially the period when the disabled participated in the area of lecturer for improving awareness in disabilities principally did not take long and this

survey was made on 17 persons who were making activities in Jeju Island. Accordingly, if the study subject is expanded and the subsequent study is made on the disabled who considers the economic activities are stabilized through lecturer activities, the difference of self-efficacy between lecturer activities and other employment activities would be revealed.

It is true the education on improving awareness in disabilities were made under the assumption the awareness in disabilities would improve whoever proceeds with the education with the theme of 'disabilities' and there was not even a change to deeply think of the concern for improving the genuine effects on education too concentrated on the education progress status to date. At the time when the paradigm of welfare for the disabled is changing to the disabled themselves, it is natural the severely disabled solve the story about disabilities themselv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tried to prove how much the economic activities affect the disabled by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economic activities on the self-efficacy of the disabled while the studies in the past have tried to reveal the effectiveness of disability understanding education.

<부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설문지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된 후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이오니 평소 생각하고 느끼셨던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봄을 맞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 박 정 환

연구자 : 김 정 옥



I. 첫 번째 질문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직접 기재 및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 여(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        )
4. 귀하의 장애유형과 등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장애/ (        )급
5. 귀하의 장애발생시기 및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발생시기(        )세    ② 발생원인(        )
6.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이상
7. 귀하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  
① 예(8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9번으로 이동)
8.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경제활동영역은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        )  
① 업체(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포함)취업 (8-1번으로)  
② 장애인식개선강사 활동(8-2번으로)  
\* 업체의 범위 : 지역내 일반업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활동보조인 등  
응답자의 수입창출로 연결되는 모든 활동을 말함.

8-1. 귀하께서 업체(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적성과 맞는 직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질문내용	매우 그렇 다	그 렇 다	보 통 이 다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5.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6.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7.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 7번 질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한다.					
*10번 질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12.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잡는다.					
13.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내 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4.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5.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6.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 16번 질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 본다.					
18.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 18번 질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20.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21.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22.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내 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23.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24.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 24번 질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처나 이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추후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_\_\_\_\_ / E-mail: \_\_\_\_\_ )

